
2022년 제2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1. 7. ~ 1. 1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1. 7.	시청률	0.029

【총 평】

‘13월의 월급, 달라지는 연말정산’편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를 맞아 2022년에 처음 시행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의 취지와 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시의성을 살린 세무정책홍보로 납세자인 국민에게 연말정산 편의성을 도모하고 절세 요령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점이 정책 알림이 역할을 제고했다. 또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에서 코로나와 독감 동시 감염(플루로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3차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 철저 이행을 권고해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이 밖에 ‘알뜰신잡’은 ‘국민건강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을 통해 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지역별 기상정보, 진료 동향 등을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경제&이슈’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점을 소개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과거 한도가 상당히 제한되었는데 올해부터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이 명확해졌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통일했다.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했고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신설되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는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회사도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후 1월 19일까지 근로자를 확인하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 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PC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 신고가 가능해진다.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연금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올해부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자의 경우 영수증 등 공제증명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PC, 모바일에서 업로드가 가능해진다.

‘알뜰신잡’은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는 국민건강정보DB, 기상기후, 환경자료와 민간 소셜 미디어 정보를 융합하여 감기, 눈병, 식중독, 천식, 피부염 등 주요 질병 위험도 동향 등에 대해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22. 1. 7.	시청률	0.066

【총 평】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다음 주 도입’, ‘평택 공사현장서 화재…소방관 3명 순직’ 등 주요 뉴스와 함께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는 방역패스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태양광 폐패널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팩트 체크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클릭K’는 실생활 밀착형 주제와 내용으로 시청자의 니즈를 충족했다. ‘알뜰신잡’은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주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 점이 유익했다. 날씨 관련 소식은 뉴스 시작부분에 건조주의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불조심의 경각심을 주었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기상 캐스터 없이 날씨 예보를 함으로서 여느 다른 뉴스와 차별성을 보였다.

【구성 및 내용】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다음 주 도입”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다음 주 국내에 도입한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서 방역체계를 전면 혁신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효력에 관한 신속판결을 요청했다. 위중증 환자 감소,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 뚜렷, 60세 이상 15.6%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평택 공사현장서 화재…소방관 3명 순직
5일 오후 11시 46분쯤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 소방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 영결식은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다.
- 북, 올림픽 불참 “참가 못하지만 중국 전적 지지응원”
북한이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의사를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중국측에 편지를 보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올림픽 참가가 어렵지만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 설 민생 대책…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융자 지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설민생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청탁지원금 선물 한도를 두배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정,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한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역패스 일시 정지, 백신 효과 미미하다?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감염위험 2.4배 높다. 미접종자의 중증진행율이 접종완료자의 5배, 사망위험은 4배이다.
- 10월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코로나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다소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방역 패스가 강화된 덕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1713회)		
방송일자	2022. 1. 7.	시청률	0.002

【총 평】

임인년 새해를 맞아 '호랑이'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본 구성이 돋보였다. 이 밖에 글로벌 소식과 다문화 소식,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지자체의 정책과 정보를 전달했다. 오래된 물건을 고쳐 재활용하고 판매하며, 선순환을 일으키는 '장난감 병원'과 낡고 파손된 책을 고쳐주는 '책고수들의 봉사 활동은 환경 보호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었다. 정 나누는 서초구 '두레냉장고'는 자치구 공유 촉진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자체의 정책을 홍보해 소구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 2022년 신성·용맹의 상징 '호랑이의 해'
한국 호랑이는 민족의 마스코트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일제 강점기 무분별한 포획과 6·25전쟁으로 한국호랑이는 멸종 위기를 맞아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다.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아, 건강해지고, 호랑이 보존에 노력하기를 바란다.
- 몽골에서 고성까지 '독수리' 날아오는 이유는?
전세계 2만여 마리 중에 한반도에 오는 독수리 2천 마리인데 그 중에 고성에서 7~8백 마리가 고성에서 겨울을 난다. 고성군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먹이를 주면서 독수리를 보살펴온 덕분에 이곳으로 방문한다.
- '다름'의 이해,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 교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7년부터 베트남, 중국, 몽골, 일본, 필리핀 5개국 원주민 교사들이 다문화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고장난 장난감, '병원'으로 오세요
서울시 동작구에는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다. 장난감 의사는 대부분 7~80대 마을 어르신으로, 선발을 거쳐 10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장난감병원에서 근무한다.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도 된다.
- 낡은 책에 새 생명 불어넣는 '책고수'
경기도 군포시의 평생교육관 꿈마루 공간에서는 '책을 고치고 수리해준다.' 낡은 책을 고치고 수리해주는 책고수들은 자원봉사자들로 한달 평균 3~40권을 수리한다. 군포 문화재단에서 예술제본 교육을 받고 책고치는 법을 연수한 뒤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 따뜻하게 채우고 편안하게 가져가는 '두레냉장고'
서초구 공유 냉장고는 누구나 채워 넣고 꺼내 먹을 수 있는 모두의 냉장고이다. 주민들 사이의 인심과 정도 나눌 수 있고, 음식 허비를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좋은 결과이다. 2021년 8월부터 운영한 '두레 냉장고'는 총 4개소에 비치되어 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2. 1. 7.	시청률	0.016

【총 평】

코로나19 특집뉴스로 최근 핫이슈인 먹는 치료제 도입, 병상 확충 등 코로나 관련 뉴스를 시작부분에 배치해 주목도를 높였고 방역지원금 지원, 일자리 조기 채용 등 경제살리기 아이템 등 수용자 니즈를 살렸다. 특히 종합뉴스와 뉴스 매거진 포맷으로 다양한 생활정보 특성을 살려 뉴스의 집중도와 흡인력을 높였다. 이 밖에 뉴스링크3, S&NEWS, 클릭K 등 젊은 층의 취향과 맞닿아 수용자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분야를 부처별로 알아보는 기획이 정체성을 제고했다. 또 생활밀착형 정책뉴스를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해 소구력과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지만 뉴스의 핵심 요소인 심층성과 현장성은 새해에 보강해야 할 과제이다.

【구성 및 내용】

최근 핫이슈인 ‘먹는 치료제 다음 주 도입, 방역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 “주한미군 더욱 철저히 방역관리”, 병상 확충 TF ‘이달 말까지 6천900여 병상 확충’ 등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전반부에 배치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부가 다음 주 국내로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쓰이도록 준비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도 빠르게 추진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병상 확충 TF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달 말까지 6,9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화재를 진화하다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한 합동영결식 뉴스를 전했고 노인과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계획된 정부 직접일자리 106개중 60만 명의 일자리를 1월에 조기 채용을 소개했다.

북한이 중국에 베이징올림픽 불참을 통보했으며, 정부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지자체와 공유되며 5년 이상 군복무를 한 뒤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다.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어 방역당국이 살처분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뉴스링크3’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플루로나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와 합성어인 플루로나 사례가 추위가 심해지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S&NEWS’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이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거듭나는 소식을 소개했고 ‘클릭K+’는 2022년 부동산 정책 관련 DSR 규제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고 전했다. 또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의 월세 등 주거 지원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1. 8.	시청률	0.129

【총 평】

‘시골에서 삶의 기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서천 삶기술학교 청년들’편에서는 한산모시와 소곡주의 고장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전통주와 특산물을 브랜드화하며 내일의 꿈을 펼치는 기술학교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그린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한산’해진 한산면 마을에 나타나 다양한 변화와 움직임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들의 활동을 희망적으로 그려 새해 방송소재로서 뛰어났다. 이 밖에 저출산 고령화 농촌문제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해결책이 눈길을 끌었고 청년들의 귀촌 안착 창업스토리를 담아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 남녀 젊은이들이 왜 농촌으로 왔는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마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왔는지, 주민과 청년들의 만족도 등을 조목조목 짚은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시골에서 삶의 기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서천 삶기술학교 청년들’는 서천군 한산면에 소재한 작은 시골마을에 정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단체인 삶기술학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삶기술학교에 대한 소개, 마을주민들과의 인연, 소곡주 리브랜딩, 청년들의 마을 내 공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세월의 두께가 느껴지는 서천군 한산면 작은 시골마을에 몇 해 전부터 젊은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이 지켜낸 마을의 전통은 청년들에게는 새롭고 청년들의 활력은 반대로 주민에게 자극이 되었다.

삶기술학교의 청년들은 이곳을 회사가 아니라 학교라고 칭한다. 이곳은 청년들의 삶의 기술과 지역 주민들의 전통들을 합치는 일종의 실험학교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청년들이 마을과 인연을 맺은 것은 한산모시문화제에 참여하면서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한산모시, 소곡주 등으로 이어졌다. 처음 청년들이 마을에 정착할 당시에는 주민들로서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청년들의 지역자원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성과로 나타나면서 서로 협력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그렇게 삶기술학교를 설립했고 지금은 한산소곡주를 활용한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산소곡주의 리브랜딩 작업을 통해 지역의 자원이 온라인을 통해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 제사주로 주로 활용되던 한산소곡주를 가족, 연인, 친구들이 와인처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포장 등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청년들이 처음 마을에 정착하여 개조한 공간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고 쉼터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5년간 무료로 임대받은 공간이다. 현재 이런 공간은 마을에 19개로 늘어났다. 이런 공간과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 5,000여명의 청년들이 거쳤고 60여명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1. 9.	시청률	0.005

【총 평】

금주의 핫 이슈를 다룬 '친북'에서는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8기 4차 북한의 노동당 전원 회의를 화두로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 보았다. 자력갱생을 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정과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동향을 통찰력있고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슈텔링'에서는 북한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소식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겨울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즐기는 겨울 놀이인 쪽발기와 외발기 스케이트 열풍과 스키장 이야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겨울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이후 북한의 행보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북한은 제8기 4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목살, 대남·대미 메시지, 김여정 부부장이 없었다. 모두의 관심사인 김정은 위원장의 목살은 어디로 갔을까?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살이 빠진 모습을 공개한 듯하다. 또 남북관계에 대한 대외적, 공개적인 메시지가 없었는데, 원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원래 대내 목적이므로 대미·대남 메시지가 없었던 듯하다. 이번 전원회의의 중요한 내용은 "새로운 농촌 발전시대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식량난 걱정을 많이 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식량생산을 농부들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해결하자고 했다.

북한이 1월 1일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 결정문에 '자력갱생' 구호는 없었지만, 기간산업(기초산업)을 키워나가자고 했는데, 지금 폐쇄되어 대외무역이 없으므로 자력갱생일 수밖에 없다. 또 김여정 부부장이 전원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여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치국 후보위원 승진자 명단에는 없었다. 북한이 대남·대미 관계를 개선하고 자력갱생이 아닌 외부 교류를 통해 국가 발전의 방법을 고려한다면 첫째, 올해 상반기 내에 미국과의 대화재개, 둘째 상반기 내에 코로나백신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 셋째 종전 선언을 계획한다면, '자력갱생'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 외교를 우리가 전개한다면 희망적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이슈텔링'에서는 북한의 겨울 문화를 소개했다. 북한 청진의 겨울 날씨는 맨살을 내놓을 수 없는 추위로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누워 '퐁퐁이, 알팡이'를 먹는다. 북한의 겨울 놀이는 '쪽발기'가 있는데 날이 하나뿐인 썰매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관건으로 얼음 서핑과 같다. 북한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좋은 천연의 환경을 갖고 있지만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는 많지 않다. 북한이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은 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2. 1. 9.	시청률	0.000

【총 평】

‘청년정책 2부 - 2022년 임인년,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다’에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지원과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국내 굴지의 6대 대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가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 밖에 청년 주거 안정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비롯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장학금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알려주었다. 강원도 평창의 산양삼 두유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하여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상황이 길어갈수록 고독사를 택하는 30대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노년 층에서 발생하던 고독사가 이제는 젊은 층으로 번져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독사는 5-6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일자리 문제였다 주거 문제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는 층은 청년층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6일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지원과 장학금 범위를 확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N포 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우리 청년들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의 산양삼 두유기업은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직원들이 축소되었는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을 지원받았다. 회사로서는 인력을 충원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구직자로서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도 한다. 그 비율이 61.7%이며 고용유지율도 높다. 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정부 지원으로 민간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것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주식회사, LG, 포스코, KT 등이 참여하는데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청년 고용률을 회복하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청년 주거 안정성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월세대출 확대, 청년 주택공급,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한다. 또 청년들을 위한 내집마련 기회도 증가할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도 개편되어 범위를 확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위 ‘지옥고’라고 말하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촘촘한 주거 사다리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국가장학금이 실질적 수준으로 조절되어 소득에 따른 교육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1721회)		
방송일자	2022. 1. 13.	시청률	0.000

【총 평】

환경보호와 재활근로자 돕기 등 일석3조 효과를 내고 있는 “방치 자전거로 만든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를 비롯해 팬심이 만든 방탄소년단 ‘뷔’ 벽화 거리에 가다, 예술을 넘어 대중문화로 ‘판소리’가 남긴 발자취 등 볼거리 중심의 문화 아이템을 소개했다. 또 “독일 교민 힘겨운 상황 속 ‘코로나19 종식’ 희망”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독일교민 소식을 전달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재생 자전거 온라인 판매’는 방치된 자전거의 실태·문제점·해결책·기대효과 등으로 소구력을 높인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 ‘팬심이 만든 벽화거리’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모교에 타일을 이용한 벽화거리를 만들어 대구 테마관광과 인근 상가 활성화 등에 기여한 점이 잘 표현됐다. ‘판소리의 발자취를 본다’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되고 있는 판소리 전시회를 바탕으로 예술을 넘어 대중문화로 발돋움한 판소리의 오늘이 있기까지를 상세히 소개한 점이 흡인력을 높였다. ‘글로벌 리포트’ ‘독일교민들의 지금’에서는 자영업을 하는 교민들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가족들이 연주회를 여는 모습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힐링’효과로 이어졌다.

【구성 및 내용】

- 방치 자전거로 만든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서울지역에 버려진 자전거는 최근 5년간 8만대 가량으로 한해평균 15,000대 달한다. 이에 서울지역 자치구 자활센터에서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재생자전거를 판매하는데 판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자전거 중로거래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재생자전거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 팬심이 만든 방탄소년단 ‘뷔’ 벽화 거리에 가다
대구의 대성초등학교 담장에 BTS 팬들이 주도한 대형 벽화가 조성되었다. 해당 벽화에는 뷔가 좋아하는 반고흐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과 앨범표지, 팬들의 글귀 등이 담겼다. 지난해 뷔의 생일을 기념하여 중국 팬클럽이 제안한 것을 학교와 구청이 받아들였다.
- 독일 교민 힘겨운 상황 속 ‘코로나19 종식’ 희망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속 자영업을 영위하는 독일교민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업중지에 대한 보상 지원금은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재택근무를 하는 교민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한다.
- 예술을 넘어 대중문화로 ‘판소리’가 남긴 발자취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한 판소리가 남긴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영원한 판, 소리로 잇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7세기 시작한 판소리 예술을 샌드아트, 영상자료, 감상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2. 1. 13.	시청률	0.076

【총 평】

“‘먹는 치료제 이번 주부터 사용’ 방역패스 적용도 본격화를 비롯해” PICK&PICK에서는 “나, 괜찮은 놈이야”, 韓 최초 골든글로브 ‘오영수’, ‘아들 이한열 곁으로’...배은심 여사 영면 등을 방송했다. 2022년 새해, 남북·북미관계 전망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와 종전 선언 가능성 등을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오영수 배우는 수상소감으로 “나 괜찮은 놈이다”라고 말했다. 골든글로브 상은 유색인종을 배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오영수 배우가 상을 수상한 것은 오징어게임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한열 열사의 죽음 이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오시던 ‘민주화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 영면하셨다. 정부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지정하기로 했다.

【구성 및 내용】

‘먹는 치료제 이번 주부터 사용’ 방역패스 적용도 본격화는 ‘먹는 치료제’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전망했다.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에서 생산한 약으로 당초 10만 여 명의 예약 중에서 2만 1천 명분의 약이 도착했다.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에게 우선 투약될 예정이며, 이 약이 세 알로 구성돼 있으며 다섯 번 먹게 돼 있는데 치료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의 발표가 예고된 상황에서 새로 발표되는 거리 두기 조정안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방역 패스 적용 공간이 넓어지면서 최근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의 집행 정지를 선언했다. 국가의 방역권과 개인의 행복권이 부딪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덴마크 등 백신 접종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를 봐서도 방역 패스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오영수 배우의 제79회 골든글로브상 수상 의미에 대해 살폈는데, 한국인으로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과 수상자 오영수 배우의 겸손함이 충분히 화제성 있는 내용이었다. 골든글로브상은 인종차별, 성차별, 부정부패 논란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

아들 이한열 열사의 죽음 이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오시던 ‘민주화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 영면하셨다. 정부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지정하기로 했다. 고 이한열 열사가 목숨을 잃은 후 어머니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 붉은 장미를 최루탄 총구에 꽂았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소개했다. 생전 배은심 여사는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죽지 말고 죽을 힘을 다 해서 싸워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최근 북한이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관련, 북한 문제의 가장 큰 변수는 미사일도 베이징 올림픽도 종전 선언도 아닌 코로나 19를 꼽았는데, 북한 주민들의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